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9.(월) 14:00 배포 2023. 10. 9.(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석유·가스 수요와 공급 상황 긴급 점검

- 국내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수요와 공급 차질 없도록 관련 기관, 업계와 총력대응 계획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10월 7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남부에 공세를 펼친 것을 시작으로 양측의 무력충돌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해당 사태와 관련한 국내 석유·가스 수요와 공급 현황과 국내외 유가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10월 9일 월요일 오후,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분쟁지역이 국내 주요 원유·가스 도입경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거리가 있어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현재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모두 정상 운항 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석유와 가스의 비축량 현황을 확인하며 국내 수요와 공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10월 9일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약 3.6% 상승한 $87.70/B(브렌트유, 오전 9시 기준)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 상승세를 보이나,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주변 산유국의 대응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이전 중동의 분쟁 사례와 현재 국제정세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이번 사태에 따른 석유와 가스 가격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7%와 가스의 37%를 공급하는 지역이며, 중동의 정세가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국내 수요와 공급 차질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 업계가 합동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관련 사태를 지속 점검(모니터링)하며,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함께 유조선 운항 상황 등 수요와 공급 동향과 유가 동향을 자세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044-203-5223)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044-203-5230)
		담당자	서기관	한주현(044-203-52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비 석유·가스 수급상황점검회의」 개요

□ 개 요

○ **(일 시)** ’23. 10. 9(월), 14:00~15:00

○ **(장 소)**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정부) 산업부 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통상협력국장,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등
(기관)석유공사 최문규 부사장, 가스공사 임종순 부사장

○ **(주요내용)**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석유·가스 수급 상황 및 유가 영향 등 점검

○ **(홍보)** 보도참고자료 배포(회의 비공개)

□ 세부 시간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3	(03’)	▸ 모두발언	산업부 2차관
14:03~14:23	(20’)	▸ 안건발표 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동향 및 관련 석유·가스 수급 현황 (산업부) ② 관련 석유 가격 및 수급 영향 (석유공사) ③ 관련 가스 가격 및 수급 영향 (가스공사)	산업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14:23~14:58	(35’)	▸ 자유토론	-
14:58~15:00	(02’)	▸ 마무리 발언	산업부 2차관